

HWASEUNG LIFE MAGAZINE

화승전진

2021 Winter Vol.65

2023
앞으로!



화승그룹

CONTENTS

2021 Winter Vol.65



달에 발자국을 찍으면서 우주에
대한 인류의 꿈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신발에서 자동차, 방산 및
항공우주 소재로까지, 그동안 화승도 꿈을
확장해왔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세계로
우주로 쏘아 올릴 화승의 꿈에 함께
답송해주세요.

총괄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 부장

화승그룹 홍보팀 심일욱 과장

화승R&A 이지학(기획팀 과장)

화승소재 임상호(영업관리팀 팀장)

화승T&C 홍성열(관리팀 대리)

화승네트웍스 강우준(전략기획팀 대리)

화승인더스트리 정성욱(IR/경영관리팀 매니저)

화승케미칼 한동민(경영지원팀 매니저)

베트남 화승비나 정영섭 차장

미국 화승코퍼레이션 ARHQ 최일영 차장

중국 화승코퍼레이션 CRHQ 문지훈 과장

2021년 12월 17일 발행(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연제, 바00003 신고일자 2016년 8월 30일

발행인 현지호 편집인 김정식

기획·진행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심일욱

편집·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02-515-3681)

인쇄 우일인쇄

펴낸 곳 화승그룹(www.hwaseunggroup.com)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연산동)

장천빌딩 화승그룹 회장실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메일 illwook.sim@hscorp.com

SPACE

02 Let's 70 과거의 유산 미래의 씨앗 '화승전자 까팩스'

06 ROAD 01 화승, 미래로

08 ROAD 02 ESG, 이제는 경영원칙, 그리고 미래의 생존전략

12 ROAD 03-1 더 큰 미래로의 전진을 위해 더 고무적인 화승코퍼레이션

16 ROAD 03-2 화승의 미래와 함께할 화승코퍼레이션의 길
허성룡 화승코퍼레이션 대표

20 ROAD 04 세계인의 머리 위엔 화승이 있습니다
글로벌 모자 OEM 생산기업, 유니팩스

24 ROAD 05-1 화승의 미래, 소재가 답이다

28 ROAD 05-2 세계에 알린 화승의 고무, 고무적인 미래를 전시하다
2021 국제 고무 컨퍼런스 'RubberCon 2021'

SHUTTLE

34 화승 인사이드 Smart Work로 화승의 가치를 높인다
화승네트웍스 글로벌정보화팀

38 전화승이 접한 사람 시간을 켜켜이 쌓아 작품을 예술로 쌓다
시간을 못칠하는 허명욱 작가

44 핫라인 오로지 함께할 수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김진수 싸이더스 스튜디오 엑스 이사

50 핫이슈 시상식의 품격이 담긴 2021 제30회 부일영화상

STATION

56 和友동산 엄마의 정원에서 엄마의 정을 느끼다

62 和友공간 청년들을 품고 도시재생을 꽃피우다

66 전화승 큐레이션 오징어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70 화승FUN탐사 잔을 들어라, 윈더폴!

72 HWASEUNG NEWS

76 즐거운 화승생활 내일을 향해 쏘라!

과거의 유산 미래의 씨앗 ‘화승전자 까팩스’

CAFAX



화승 르까프가 만든 팩시밀리,
까팩스를 기억하시나요?

보다 편리하게
보다 경제적으로
보다 스마트하게

인터넷 보급이 원활하지 않던 90년대,
관공서나 회사에서 팩스는 필수였고
당시 화승의 까팩스는
화승의 도전과 혁신의 산물이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어
정겨운 다이얼 소리를 울리던
메이드 인 코리아, 까팩스의 추억

새로운 미래를 향해
과거를 되짚어봅니다.

화승 70주년,
과거의 유산에
미래의 씨앗을
심어봅니다.



SPACE

우리 삶의 동력을 만들어온 화승,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새롭게 성장 동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ESG를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친환경에너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는 70년을 넘어 100년 화승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미래 화승, 로

인류의 동력인 신발로 시작해
자동차 부품, 소재, 정밀화학, 종합무역까지

21세기 초 제2의 도약을 거쳐
21년 화승의 현재를 말해주는 사업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이 빛날 수 없고
불행 없이 행복이 환할 수 없듯
화승은 지난 기업역사로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쓸 화승의 역사는 미래뿐입니다.
그 미래는 앞으로 나갈 전진뿐입니다.

인류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에서
디지털 세상인 두 번째 지구까지,
신발제조업에서 출발해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방산 사업까지
정밀화학 제품에서 핵심 신소재 사업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 있고 투명한 기업,
전진을 위한 동력인 ESG를 장착한 화승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출격합니다.

ESG, 이제는 경영원칙, 그리고 미래의 생존전략

기업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ESG,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 지구적 외침에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의 방향성이 쏠리는 상황에서 화승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인류 생존과 기업의 명운이 걸린
ESG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기업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기업의 지속가능 전략으로 떠오른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의 3요소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의사결정구조)는 사실 나온지 꽤 오래된 개념이다. 1979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르네 파세(Rene Passet)는 그의 저서 『경제시스템과 생활시스템(Economic Systems and Living Systems)』에서 “기업은 사회(S)와 환경(E) 시스템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사회와 환경을 해치는 의사결정(G)을 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기업과 사회, 환경과의 공생을 강조했다. 영국의 저술가이자 기업가인 존 엘킹턴(John Elkington)은 1994년 르네 파세의 이론을 다듬어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윤 창출뿐 아니라 환경(E)과 사회(S)의 지속가능성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의사결정(G)을 해야 한다”라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경영원칙 TBL(Triple Bottom Line) 개념을 제시했다.

ESG 경영의 구조

CSR	투자&평가	
◦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 좋은 기업(Good Company) ◦ 기업사회공헌(Corporate Philanthropy) ◦ 경영철학과 비전 ◦ 창업자, 경영자의 정신 또는 각성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 기업 경영 환경 사회	◦ 연기금 투자: 장기 안전성+공공성 ◦ 투자 운용사 수익성+안전성 ◦ 장기투자: ESG 리스크 대응 ◦ 윤리/종교적/사회책임 투자 ◦ 사회, 환경문제 해결 투자: 소셜 벤처, 사회적기업
◦ B to G: 공공조달의 공공성 ◦ B to B: 공공사슬망 관리/평가 ◦ B to C: 소비자들의 민심, MZ세대		◦ UN PRI: 사회책임투자원칙 ◦ EU ESG 공개법, EU 그린 딜 ◦ EU 지속가능금융 공시 ◦ 한국 상장기업 ESG 공개 규범 ◦ UNEP 파리기후협약, TCFD ◦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 ISO26000: 사회책임실행원칙
거래	국제규범, 법, 규제	

기업과 사회, 환경의 공생을 강조하던 ESG는 2000년대에 들어 글로벌 투자기관의 투자원칙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2006년 UN에 모인 80여 개의 글로벌 투자기관과 연기금 운용기관은 UN 책임투자원칙(UN PRI_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제정했다. UN PRI는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6개 투자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09년 UN PRI의 서명기관이 되었고 현재 4,000여 개가 넘는 글로벌 은행, 투자사, 투자 평가사, 연기금 운용기관 등이 UN PRI 원칙을 지키기로 서명했다. UN PRI 서명 기관이 되면 ESG 평가를 투자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2022년까지 기업투자에 대한 ESG 평가 반영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실행계획을 작년 11월에 발표했다.





“
석탄과 석유 에너지가 이끌던
탄소 시대가 저물고 태양과
바람이 새로운 산업의 심장이
되는 전환점이 바로 지금이고
그 중심에 ESG가 있는 것이다.
”

기업 경영방식의 변화와 대전환을 이끈 ESG

세계평화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UN이 투자원칙까지 만들어가며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은 1970년대부터 서구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인구증가, 자원고갈, 환경오염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불안하게 만드는 3대 요인이며 과학자와 통계학자들이 예측한 불안한 미래의 시나리오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1990년대 이르러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지속가능성의 네 번째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UN은 세계평화와 인권 수호를 위해 인류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UN과 같은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영리 기

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 기업은 인류문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사회와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UN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연기금, 투자기관, 은행들이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기업들이 이윤추구 중심의 경영방식을 지속가능성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생각했다. 블랙록, 뱅가드, 시티뱅크, HSBC, UBS, 모건 스탠리 등 UN PRI에 서명한 글로벌 거대 투자사와 은행들은 UN의 대의명분에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실리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 글로벌 투자사와 은행들이 운영하는 거대 자금 즉, 연기금, 글로벌 공적자금, 국부펀드 등은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안정성과 투자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이 장기안정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ESG 경영을 못 하는 기업보다 다

소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거대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연기금, 투자사, 은행으로서는 UN이 나서서 ESG를 강조해주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인 동시에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사, 은행들의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되고 있다. 그 새로운 투자의 기회는 바로 탈탄소 경제, 즉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고 있지 못하던 글로벌 거대 자금의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석탄과 석유 에너지가 이끌던 탄소 시대가 저물고 태양과 바람이 새로운 산업의 심장이 되는 전환점이 바로 지금이고 그 중심에 ESG가 있는 것이다.



ESG, 기업의 실천이 우선돼야 할 지속가능경영

신재생에너지가 ESG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S에 해당하는 사회 불평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면 국가, 정치, 인종, 성, 종교, 문화, 소득, 교육, 세대 간의 불평등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일으켜 세계 곳곳에서 끊임 없이 전쟁과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사회(시장)불안은 인류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지속가능성 문제를 국제기구나 국가 정치에만 맡겨두지 않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ESG 실천과정에서 기업은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사회, 환경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평판을 얻게 된다. 이러한 평가, 평판은 ESG 투자와 거래로 연결된다. 투자자, 정부, 기

업, 소비자 모두 사회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것을 점점 더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ESG는 과거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투자, 거래의 원칙이자 새로운 산업 부흥의 기회로 자리 잡고 있다. ESG는 빠르게 글로벌 전체로 확산 중이다. 지구온난화와 사회불평등이 일부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제3세계까지 실시간으로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의 큰손들이 국경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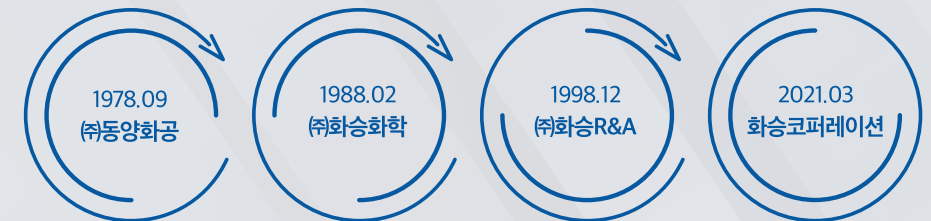
“
ESG는 과거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투자,
거래의 원칙이자 새로운 산업
부흥의 기회로 자리 잡고 있다.
”

투자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공급 사슬망 전체의 환경과 사회문제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원시림을 불태워 고무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고무를 얻는다면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그 고무를 사용해서 만든 신발이나 타이어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고무 농장과 가공공장, 그리고 신발공장에서 아동노동이 발견되거나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거래를 중단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무조건 싸게 만들어 비싸게 파는 이익 극대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환경과 사회와 기업이 지속가능한 공생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행동을 비즈니스를 통해 보여주어야만 하는 ESG, 즉 지속가능경영의 시대가 되었다. 지속가능경영, ESG를 경영의 원칙과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미래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만 한다. 그래야 기업의 내일이 있다. 🚀

더 큰 미래로의 전진을 위해 더 고무적인 화승코퍼레이션

새 옷으로 갈아입어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린 것처럼 창립 50년, 100년 된 기업들의 특징이라면
초심과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동양화공에서 2021년 현재, 기업명은 달라졌지만
화승코퍼레이션의 바탕은 달라지지 않았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사명은 더 큰 전진을 위한 것일 뿐,
미래를 위해 더 고무적일 수밖에 없는 화승코퍼레이션의 사업 메시지에 주목해본다.

화승코퍼레이션으로의 전진



한눈에 담는, 글로벌 화승코퍼레이션

- 자동차부품
- 소재
- 종합무역



인적분할 통해 사업 역량 강화한 화승코퍼레이션

2021년 3월 화승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화승코퍼레이션은 인적분할을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였다. 1978년 동양화공으로 출발해 올해로 창립 43주년을 맞이한 화승코퍼레이션, 그동안 몇 번의 상호변경이 있었지만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였다. 척박한 산업환경 속 산업용 고무 제품 생산에서 자동차 고무 부품으로 영역을 확장, '시장 개척을 향한 의지와 기술력 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결과, 자동차 고무 부품 사업 분야 국내 점유율 1위 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화승코퍼레이션 전략 사업 구조



화승코퍼레이션,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구심점

화승코퍼레이션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미래, 더 경쟁력 있는 시장 발굴을 위해 화승그룹 내 자동차 부품, 산업용 고무, 소재사업, 종합유통 등 핵심 분야를 이끌며 주요 계열사들(화승R&A, 화승T&C, 화승소재, 화승네트웍스)과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1세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 세계적 이슈와 쟁점으로 떠오르는 친환경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 경쟁력 구축, 즉 화승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이자, 기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형 지주회사로 포지셔닝한 이유이기도 하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자동차부품·산업용 고무제품·종합무역·소재 사업 분야의 화승 그룹 계열사를 연결하는 GHQ(Global Headquarters) 역할을 맡고 있다. 각 계열사에 맞춤형 사업 전략을 제공하는 한편, 경영·생산·기술·IT 서비스 지원 및 투자 관리로 각 사의 안정적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또한 토목, 항만, 건설 산업현장 등 일상에 쓰이는 물품에서부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고무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분야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KRHQ(Korea Headquarters), ARHQ(America Headquarters), CRHQ(China Headquarters)로 나누어 원가 관리, 생산 프로세스 개선, 기술 관리 개발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재와 종합무역 분야 또한 안정적 운영 및 성장 관리로 고객의 니즈에 보답하고 있다. 화승코퍼레이션을 주축으로 계열사들은 구매, 가공, 생산, 판매를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된 밸류 체인을 구축, 글로벌 자동차 OEM 및 산업고객사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핵심 분야 이외에 토목, 항만, 건설 등을 비롯해 우리 일상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전반에도 연구,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계획이 그에 따른 방증이다.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로 화승의 미래 사업을 이끌어 갈 화승코퍼레이션,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제품을 공급받은 물론 화승R&A, 화승T&C, 화승소재, 화승네트웍스와 함께 아시아, 미주, 남미,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더 나은 내일, 더 큰 미래를 향한 화승코퍼레이션의 고무적인 전진을 기대해본다. 🚀



Seong-Ryong Heo



소재에서 부품까지, 화승그룹의 또 다른 면모

화승의 미래와 함께할 화승코퍼레이션의 길

-화승코퍼레이션 허성룡 대표와 만나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화승’하면 신발을 떠올리지만, 화승은 그동안 많은 변신을 이룩해왔다. 1953년 고무신을 생산하던 동양고무 화승은 1978년, 동양화공(현 화승알앤에이)을 설립해 고무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 부품 시장에 진출하며 사업을 다각화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화학 소재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 1996년 화승소재를 설립해 지금의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 생활용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소재 개발에 집중 투자했다.

“화승그룹은 이제 더 이상 신발로 대표되는 기업이 아닙니다. 소재 개발(업스트림)에서부터 부품 생산(다운스트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용, 비자동차용 고무 분야까지 탄탄한 수직 계열화를 이뤘습니다.”

1985년 화승알앤에이 입사 이후 FL사업본부장과 화승소재 소재사업본부장을 지냈으며 현재 화승소재 대표이사 겸 화승코퍼레이션 대표를 맡고 있는 허성룡 대표의 말이다. 화승코퍼레이션은 기존 화승알앤에이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존속법인이 된 기업. 소재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차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승알앤에이는 올해 초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분할 신설법인인 동명(同名)의 화승알앤에이는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을, 존속법인 화승코퍼레이션은 글로벌 부품 사업 확대 및 비자동차 사업,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맡았다.

- ❖ 화승코퍼레이션의 미래 신사업은 에너지와 항공·방산 분야이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분야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다.



화승코퍼레이션이 선도해 나갈 화승의 미래



화승코퍼레이션은 자동차부품·종합무역·고무소재 사업 분야의 계열사를 연결하는 GHQ로서 기존 자동차 사업의 글로벌 확대를 꾀함과 동시에, 사업 진단과 투자를 통해 화승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나가고 있다. 또한 산업용 고무제품을 기반으로 한 인터스트리얼 사업을 운영하여 Electrification(전기화), 친환경, 방산/해양, ESG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21세기 경영환경과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화승도 그 변화의 중심에서 있고요. 준법을 통한 정도경영과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탄탄한 밑그림 위에 흔들림 없이 견고한 구조를 쌓는 화승코퍼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허성룡 대표가 주목하는 화승코퍼레이션의 미래 신사업은 에너지와 항공·방산 분야이다. 산업용 고무를 재료로 전력 이송, 에너지저장(ESS)에 필요한 부품을 개발한 화승코퍼레이션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분야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다.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진 전력을 이송하는 전선보, 접속재, 부유식 부품과 ESS 쿨링 부품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항공·방산 분야에서는 헬리콥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고무 부품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해외 기업이 공급하는 헬리콥터 실링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KAI) 등과 협력해 국책 과제로 부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화승코퍼레이션은 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향후 ESG로 사업의 미래 구조를 바꿀 그 중심에 변함없는 뚝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허성룡 대표, 그와 함께 열어갈 화승코퍼레이션의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

세계인의 머리 위엔 화승이 있습니다

-글로벌 모자 OEM 생산기업, 유니팍스

지난 2019년, 화승엔터프라이즈는 나이키와 언더아머의 고객사이자 스포츠 모자 OEM 생산업체로 유명한 베트남 유니팍스(Unipax)를 인수하였다. 다소 주춤했던 패션&스포츠산업계로 사업구조를 재확장,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화승 가족으로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멋지고 유니크하게 질주하고 있는 유니팍스를 조명해본다.

UNIP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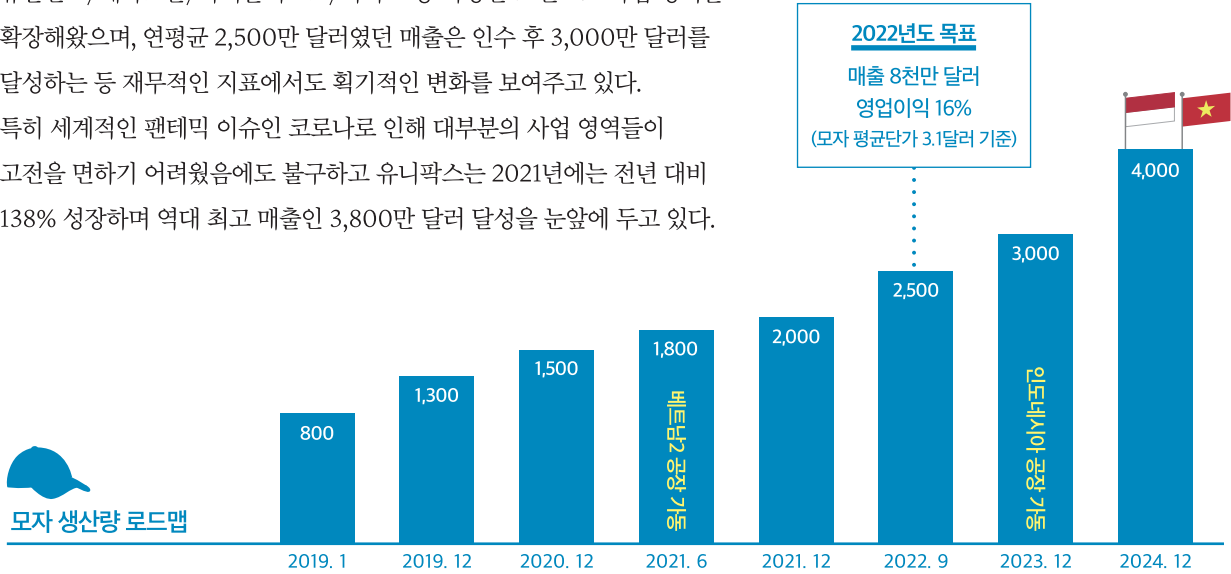


화승 인수 후 성장가도를 질주하고 있는 유니팩스

베트남 최대의 도시인 호치민에서 북동쪽으로 약 30여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 약 125만 명의 동나이 빈화시, 이곳 아미타 공단에서도 유난히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장을 꼽으라면 유니팩스를 빼고 이야기하기 힘들 것이다. 유니팩스는 화승엔터프라이즈와 에스비파트너스가 각각 50%씩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승크라운을 통해 2019년 1월에 인수되었다.

인수 당시만 해도 월 70만 장 내외의 모자를 생산했던 유니팩스는 자동화 기계의 투입, Lean line 시스템 도입과 인하우스, 아웃소싱 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혁신 활동으로 현재는 무려 3배의 생산량인 2백만 장을 생산하고 있다.

한때 나이키 전문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나이키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와는 다르게 3년간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과 카테고리 확장을 통하여 라코스테/뉴발란스/데카트론/타이틀리스트/하다드 등 다양한 브랜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으며, 연평균 2,500만 달러였던 매출은 인수 후 3,0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재무적인 지표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팬데믹 이슈인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 영역들이 고전을 면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팩스는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8% 성장하며 역대 최고 매출인 3,800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발에서 모자까지, 화승과 함께할 멋진 노력들

코로나 사태 이후 시장의 Rebound* 및 Multi COO**에 대한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2021년 3월 하우장성 비탄시에 제2공장을 설립하고 현재 100만 장의 모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 인도네시아로의 사업 확장도 계획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은 유니팩스의 더블 비즈니스 달성이 예상되며 글로벌 브랜드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토대로 글로벌 최고의 OEM과 ODM 개발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유니팩스의 성장가도는 버티컬 비즈니스 경영 목표인 소통, 차별화, 전문화, 디지털화, 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적인 비전과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30% 절감을 목표로 태양광 패널 설치 및 친환경 자재를 통한 환경보호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글로벌 최고의 신발 OEM 회사인 화승엔터프라이즈와 최고의 모자 OEM 유니팩스는 우리 신체의 가장 높은 곳인 머리에서부터 가장 낮은 발끝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최고의 스포츠웨어 회사로 우뚝 서기 위해 오늘도, 멋쟁이 모자를 눌러쓰고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Rebound: 코로나 극복 및 수주 회복/증대
**Multi COO(Country Of Origin): 원산지 다변화

세계에 알린 화승의 고무, 고무적인 미래를 전시하다

2021 국제 고무 컨퍼런스

화승코퍼레이션, 화승소재 홍보부스 참가

코로나19로 막혔던 국제행사가 조금 풀리기 시작했던 지난 가을, IRCO(International Rubber Conference Organization)와 한국고무학회가 주관한 국제 고무 컨퍼런스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고무 대표기업인 화승이 함께했고, 그 고무적인 미래를 전시를 통해 알렸다. 한국고무학회와 화승의 콜라보, 화승코퍼레이션과 화승소재의 콜라보를 통해 세계적인 고무산업에 산학연이 함께하는 장을 스케치했다.

RubberCon 2021





지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고무 관련 최대 국제 학술 단체인 IRCO(International Rubber Conference Organization)와 한국고무학회가 주관하는 국제 고무 컨퍼런스 ‘RubberCon 2021’이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RubberCon’은 매년 영국, 중국, 인도, 프랑스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개최되어왔으며, 한국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는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돼 국내는 물론, 해외 연구자들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이번 ‘RubberCon 2021’의 주요 토픽은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고무 과학 기술을 위한 혁신적 선구자(Innovative pioneers for smart and sustainable rubber technology)’로,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 타이어, 지속가능한 고무 부품, 고무 신기술 등에 대한 구두 발표 및 포스터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 학술대회의 메인 행사 중 하나인 홍보부스 전시에 화승이 함께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출범 현황과 인더스트리얼 사업부의 산업용 고무 제품 및 향후 사업에 대한 소개를 전시했다. 화승소재는 대한민국 대표 고무 기업답게 화승소재의 현황과 고무 제품을 알렸고 화승의 고무 기술력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고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비롯해 학계, 학생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화승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로 자리매김하는 자리였다. 화승코퍼레이션 인더스트리얼 사업부, 화승소재 직원들이 직접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참여객들과 함께했다. 이틀간의 선한 영향력으로 화승의 이름이 드높아지길 기대해본다. 🍷



SHUTTLE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스포츠 모자 OEM사로 유명한 유니팩스를
인수함으로써 우리 신체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를 아우르는
스포츠웨어 기업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화 신고 모자 쓴
화승엔터프라이즈의 다이내믹한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Smart Work로 화승의 가치를 높인다

-화승네트웍스 글로벌정보화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상(賞)은 즐겁다. 특히 어른이 되면 상 받을 일이 드문 터라 그 기쁨은 더욱 배가된다. 지난 11월 24일 화승네트웍스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어떤 상을 받은 걸까. 그 키를 쥐고 있는 화승네트웍스 글로벌정보화팀을 만나보았다.



화승네트웍스, SW산업보호대상에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화승네트웍스는 의미있는 수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지난 11월 24일 '제9회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 시상식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 촉진과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것.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한 기관, 개인, 기업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화승네트웍스는 그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한 교육을 진행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 내부적으로 2010년부터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연 2차례 이상 자체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해 왔으며 2018년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도 도입했다. 이번 쾌거의 중심에 글로벌정보화팀이 있다. 글로벌정보화팀은 사내에서도 협업과 소통이 잘되는 '스마트'한 팀으로 정평이 나있다. 스마트한 그들과 만나본다.

화승네트웍스의 미래 가치를 높여가는 글로벌정보화팀

"소프트웨어 기술이 국가는 물론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안하는 기업은 3년 후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정보화팀 김병주 팀장의 업(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묻어나는 첫 일성이다. '화승네트웍스의 미래 가치를 높여라!'는 특명을 띤 글로벌정보화팀의 구성원은 김병주 팀장을 포함하여 총 6명. 글로벌정보화팀의 터줏대감인 경력직 입사 13년차의 김 팀장을 제외하고는 입사한 지 6년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 젊은 팀이다. 비록 연차는 짧지만,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팀원들은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에서는 과히 '어벤저스'라 할 수 있다.

"우리 글로벌정보화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자체로 개발하여 다수의 저작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PC용 소프트웨어부터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팀원들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 기술력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2021년 제9회 SW산업보호대상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한
화승네트웍스 & 수상소감을 말하는
박동호 대표



SW 필요하면 우리는 만들어서 쓴다!

일반적인 기업의 소프트웨어 신규 개발 업무는 대다수 외주 업체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신생업체들이 전사적 자원관리(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선진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들은 ERP 패키지 도입에서 나아가 자체 개발을 해나가는 추세이다.

그런 흐름을 재빨리 간파한 화승네트웍스는 일찍감치 10여년 전부터 시스템 관리를 하면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소모성 자재(MRO), 공급망 관리(SCM), 창고관리시스템(WMS) 확장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화승네트웍스는 MRO, SCM, ERP 등 주요 업무 시스템도 자체 개발하거나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모방·복제에 대비해 왔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과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임직원 대상 저작권·보안 교육도 연 1차례 이상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화승네트웍스 글로벌정보화팀 이외 사내 직원들 대상으로 데이터사이언스 스터디그룹을 운영하여 데이터 분석 기법에서부터 머신러닝(컴퓨터 활용 기계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 기초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사이언스 분야가 향후에는 전 직원들이 다루어야 하는 학문이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추출, 적재, 분석의 중요성을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혹은 도입·응용하는 게 저희 글로벌정보화팀의 목표입니다.”

글로벌정보화팀 수장인 김 팀장의 말이다. 평소 서버 네트워크 관리와 새로운 플랫폼 구축 등으로도 분주한데, 다양한 분야의 사내 교육까지 진행하니 프로젝트량이 많아 보

인다. 그 탓에 팀 분위기가 예민하거나 삭막하지는 않을까. 방송인 하하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하하’라는 별명을 가진 하동훈 대리는 “취미가 직업이 된 행운아인 저희들에게는 일 자체가 즐겁습니다. 저희에겐 일터가 곧 놀이터입니다.”라고 일축한다.

때론 프로젝트 막바지에 야근도 불사하지만,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놀기를 좋아하던 공통점을 가진 팀원들이기에 즐겁게 게임하듯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그들의 생각이 컴퓨터 안에 펼쳐질 때 짜릿함을 느낀다.

행복한 어벤저스들과 상상 속으로 전진!

‘아이에게도 이 일을 물려주고 싶다’는 행복한 어벤저스들, 바로 글로벌정보화팀이다. 이들이 보여줄 미래를 향한 전진이 자못 기대된다. “SW의 한계는 없다”고 입을 모으는 글로벌정보화팀의 전진 방향은 어디일까.

“향후 화승네트웍스는 시장분석을 위한 AI 클라우드 구축 및 고객분석 툴을 개발하여 고객유치, 고객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황당하게 생각되어지거나 만화 혹은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옆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승그룹 임직원 여러분들도 상상 속의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SW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희망해봅니다.”

화승의 스마트 워커 글로벌정보화팀. ‘SW 어벤저스’인 그들의 상상이 앞당겨 보여줄 화승의 비전이 더욱 궁금해진다. 화승인들이여, 든든한 글로벌정보화팀과 함께, 저 멀리 전진하시라. 🚀

SW 어벤저스

‘화승의 미래 가치를 높여라!’ 시대의 특명을 수행하고자 스마트하게 일하는 글로벌정보화팀

김병주 팀장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 스케일과 디테일을 두루 갖춘 덕장 스타일의 글로벌정보화팀 수장		하동훈 대리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 — 열혈 게이머에서 스마트 워커로 잘 큰 엄친아
	김장운 대리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 — 선후배들을 지원하는 팀의 허리이자 서포터	
박진원 대리 프로그램 디벨로퍼 (Program Developer) — 마블 영화에서 베놈을 좋아하는 시원시원한 캐릭터의 분위기 메이커		유지원 사원 프로그램 디벨로퍼 (Program Developer) — 전자공학을 전공한 멋진 공학자이자 긍정적인 에너지이저
	전경민 사원 네트워크&하드웨어 매니저 (Network & H/W Manager) — 곳을 일을 자처하는 팀의 윤활유이자 팀의 마당발	



시간을 켜켜이 쌓아 작품을 예술로 쌓다

-시간을 옷칠하는 허명욱 작가

사진, 그림, 조각 등의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작가라고 한다.
여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작가가 있다.
속도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날로그적 시간의 깊이와 흐름을
오롯이 작품에 담아내고 있는 허명욱 작가다. 초겨울 문턱, 범상치 않은 품모를 지닌
그와의 만남을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부산에서 제 시리즈를 제대로 보여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너무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지요.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가서 갤러리를 찾아주신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 역시 부산 사람들답더군요. 좋으면 좋다, 화끈하게 표현해주시더라고요.”

지난달 ‘가나아트 부산’에서 <허명욱 개인전-漆하다> 전시를 마친 작가의 소회다. 관객들의 피드백은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메시지. 평소 공유와 공감을 강조해온 허명욱 작가에게 이번 부산 전시는 코로나로 인한 물리적 단절에서 오랜만에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전시회를 찾는 관객들은 작품을 통해 작가의 생각과 가치관을 보고 느낀다는 허명욱 작가, 그래서 공유와 공감에 가치를 둔다.

그 누구도 먼저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쉽게 따라 하지 못할 작업, 허명욱은 스케일과 장르가 남다른 전방위 작가다. 지금이 있기까지 그는 어떤 시간의 궤적을 그려왔을까. 자신의 모든 작업의 출발은 7~8세 되는 유년 시절이었다며 범상치 않았던 삶의 연대기를 풀어낸다. 제도권 교육을 박차고 나와, 그는 자신이 직접 느끼고 궁금한 것들에 천착했다. 그렇게 사진에 입문했고 회화는 물론 영상, 설치미술, 금속공예까지 작품의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그리고 범접이 쉽지 않은, ‘옷’이라는 천연 재료를 자신의 작품세계로 견인했다.

“사진과 회화를 중점하는 작업을 하면서 아크릴 물감을 많이 사용했는데 어느 날 자연의 재료는 없을까 궁리하게 됐어요. 그때 옷의 매력을 알게 됐죠. 심각하게 불편하고 힘든 재료였지만 철저하게 제 작업과 작품의 개념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직접 몸으로 겪고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평생 옷과 함께할 텐데, 지면 안 되고 적대시해서도 안 되잖아요.”

용인 작업실에 마련된 작가 갤러리에서 분신과도 같은 아톰 오브제와 함께한 허명욱 작가



1 한 겹 한 겹 시간의 겹으로 두께감이 느껴지는 미완의 패브릭 작품



2

2 그날의 색을 칠하고 시간의 깊이가 더해진 스틱시리즈 작품

3 작가는 그날의 색을 만들어 우드스틱에 칠하고 기록한다.



3

자신의 모든 작업은 시간성에 기인한다는 허명욱 작가, 단박에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천연 재료 옷 또한 시간을 통해 발현되는 결과물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회화 도료와 달리 온도 25~30℃, 습도 70%가 최적의 조건인데도 건조가 잘 안 되는 까다롭고 변화무쌍한 옷 작업, 이를 위해 작가는 ‘그날의 색’을 만든다. 중간중간 사유의 시간을 거쳐 자신만의 진득한 에너지가 모인 바로 그날에 배합해서 만든, 색은 천이나 금속판, 우드스틱에 칠해진다. 그렇게 작가의 패브릭, 강판, 스틱 시리즈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옷을 재료로 한 첫 작품은 1년여에 걸쳐 완성됐으며 개인전 당시, 이 한 작품을 걸었다고 한다. 가장 오래 소요된 작품은 6년으로, 커썬이 색을 칠하고 건조시킨 후 뜯어내고, 다시 원하는

느낌과 색이 나올 때까지 칠하고 말리는 시간의 과정을 거쳤다. 원하는 작품이 쉽게 나오지 않는 시간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았다. 작가의 작품 수가 많지 않은 이유이지 않을까.

요즘엔 15시간가량 작업하고 있다는 작가의 일상, 많은 예술인이 겪는다는 창작의 고통은 없을까. 작가는 고통이라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단다. 손과 머리로 작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품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뽀빠우스퍼처럼 계속 맴돌면서 연결된 작업을 하다 보니 평면에서 입체, 공간으로 작품의 차원이 넓어졌다. 사진과 회화에서 금속공예, 설치미술, 그리고 일상 속 예술의 가치를 담아낸 생활소품들과 가구, 거기에 직접 구상하고 만든 박공지붕의 작업실까지….



1 제품 만드는 작업장을 방불케 하는 작가의 공간, 다양한 공구가 설치미술품처럼 전시돼 있다. 2 마음에 드는 전기 스위치 모양이 없어 작가가 직접 만들었다는 스위치
3 일상 속 예술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면서 제작하기 시작한 생활소품 및 가구

4 예술은 '공유'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는 허명욱 작가 5 방대한 스케일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작가의 작업실

“직접 페인트칠하며 만든 용인1 작업실은 제게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 공간에서 시간을 쌓는 작업들이 이뤄지죠. 자작나무 스틱에 그날의 색을 칠하고 날짜를 기록해 겹겹이 붙이고, 드로잉한 강판에 옷칠하고 다시 벗겨내는 작업을 반복해나갑니다. 1년여 동안 강판에 옷칠하는 작업을 담은 기록 영상도 이곳에서 촬영됐고요.”

커다란 작업실 철문을 개방하면 고스란히 자연의 풍경이 드러난다. 그 풍경을 뒤로 작가는 옷칠 작업 영상을 촬영, 전시회에서 상영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작가의 등 뒤로 흘러갔을-꽃이 피고 녹음이 짙어지며 단풍이 들고 눈발이 흩날리는-시간을 관객들도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다. 예술은 공유돼야 한다는 작가의 지론이 담긴 영상작품인 것이다.

작품을 위한 작업실이 아닌 제품을 만드는 작업장을 방불케 하는 작가의 공간은 다양한 공구들이 마치 설치 미술품처럼 전시돼 있다. 갤러리 느낌의 또 다른 공간에는 작가의 옷칠 작품들뿐 아니라 만화 캐릭터이자 작가의 시그니처로 유명한 아툼 오브제들, 그리고 아툼 머리 모형을 쓴 하얀 소년상이 피조물처럼 서 있다. 어린 시절, 작가에게 친구이자 안식처 같은 존재였던 아툼, 소년상은 그런 아툼을 좋아했던 유년의 작가 자신이라.

소년의 시간이 쌓여 허명욱 작가가 되었듯, 그의 작품들도 시간과 함께 완성작으로 마무리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작가 허명욱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 최근 가장 몰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작가는



예술작업의 출발점이었던 유년 시절의 허명욱 작가를 투영한 소년상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민 중이라고 한다. 작품으로 교감하고 전시로 소통하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시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의 그가 필요로 하는 것 역시 시간 아닐까, 허명욱 자신을 작품에 투영해낼 시간….

“제가 완성작으로 낙점할 때 작품을 통해 깊이감을 느끼거든요. 화승도 고무신부터 시작해 현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정도의 그룹이 됐을 때, 그 초창기 정신과 깊이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회장님은 아름다움이 뭔지, 자연이 뭔지 아시는 분이예요. 미감도 있으시고요.”

얼마 전 화승원 방문을 통해 화승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작가는 예술과 기업의 공통점으로 ‘공유’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간을 켜켜이 쌓은 그의 작업은 작품으로 깊어지고, 작품은 예술로 쌓인다. 시간의 예술을 만드는 작가 허명욱의 작품에서라면 오래전 그날의 색을-시간을 거슬러-오늘의 캔버스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국내를 넘어 세계 곳곳의 뮤지엄에서 작가 허명욱의 작품과 마주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



국내 최초 버추얼 인플루언서
오로지

싸이더스 스튜디오 엑스
김진수 이사

오로지 함께할 수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가상 인간, 오로지의 런칭 스토리

이름은 로지. 얼핏 영어처럼 들리지만 순수 한글이다. '오'라는 성이 합쳐지니 오직 단 하나뿐인 캐릭터를 대변하는 듯한 이름이 되었다. 오로지는 매력적인 얼굴과 소위 말하는 '합'한 스타일 덕분에 MZ세대를 열광케 하며 인스타그램 첫 포스팅 4개월만에 만 오천 명이라는 팔로워를 달성했다. 그런 그가 지난해 12월 31일, 정체를 밝혔다. 그는 사람이 아닌, 3D 기술로 구현된 가상 인간. 올 7월에는 모 금융사 광고모델로 발탁되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고, 패션은 물론 식품과 자동차 등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10만 명이 넘는 그의 팔로워가 이를 증명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로지를 만들고, 로지의 소속사라 소개하는 싸이더스 스튜디오 엑스의 김진수 이사를 만나 들어보았다.



인스타그램에서 로지의 일상을 살펴보세요!



Oh, rozy? 오로지!

국내 최초 가상 인간 오로지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다. 급변하는 광고계에서 싸이더스 스튜디오 엑스가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로 무려 1년을 준비했다. 2020년 1월에 MZ세대를 겨냥한 ‘오로지’라는 가상의 인물이 기획되었고, 여름 무렵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모습을 공개했다. 영감이 되었던 슈두*와의 콜라보레이션도 미리 예정된 일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모델이라는 개념조차 낯설 때, 싸이더스 스튜디오 엑스는 오직 크리에이티브를 향한 열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은 거죠. 무엇보다 재미있었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펼칠 수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저희만의 크리에이티브에 목말랐던 것 같아요.”

로지가 인스타그램에서 정체를 밝히지 않고 4개월가량 활동한 것도 의도된 절차였다. 김진수 이사에게 중요한 건 로지의 친구를 만드는 것. 피부가 얼마나 사람과 비슷한지와 같은 기술적인 호기심보다 좋아하는 것에 공감할 줄 아는 소통이 우선이었다. “로지에게는 많은 세계관이 있어요. 계속 가치를 뺏어 여러 세계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했고요. 출발점이 기술이었다면 기술적 호기심에서만 머물렀겠죠.”

대중들이 ‘속았다’는 반응이지는 않을까. 로지가 가상 인간임을 선언하기 전날, 김진수 이사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컸다고 한다. 하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응원 댓글이었다. 사람들에게겐 로지의 실존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 4개월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로지를 로지 자체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슈두(shudu): 영국의 사진작가 캐머론 제임스 월슨이 3D 이미지 기술로 제작한 세계 최초 디지털 모델.



싸이더스 스튜디오 엑스는 3D 기술을 통해 로지의 표정과 외형을 구현한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모회사 로커스의 영향을 받아 싸이더스 스튜디오 엑스는 3D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오로지가 사는 세계관

22살, 스무 살을 지나 성인의 자유와 책임을 알게 되는 나이라고들 한다. 로지는 누군가에게 꿈이었고, 꿈이 될 22살에 살고 있다. 2020년에도, 2030년에도 영원한 22살이라는 세계관에서 로지는 시공간을 넘나들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을 선사한다. 올해 기획된 ‘버추얼 로지 트립’이 대표적인 세계관 중 하나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여행에 갈증을 느낄 때, 버추얼 로지 트립이 시작되었다. 로지는 사막 한가운데로 훌쩍 떠나버리거나, 1985년으로 돌아가 잠자리 안경을 쓴 친구와 빛바랜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여행은 극히 일부예요. 로지는 우주

로도, 땅속으로도 갈 수 있고 작아진 로지가 세포처럼 작아져 우리 몸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로지만의 세계관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요즘, 얼마전부터 가상 현실을 뜻하는 ‘메타버스’가 트렌디한 키워드로 뜨고 있다. 김진수 이사는 미래의 산업에서 메타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생각한다. “방송국이 송출하는 TV에서, 리모콘이라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가졌던 과거에서 벗어나 콘텐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싸이더스 스튜디오 엑스도 메타버스를 꾸려 어떠한 콘텐츠를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착하고 선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란 말 그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숏한 관심이 쏟아진다. 국내 최초 버추얼 인플루언서(Virtual Influencer)로서 로지 또한 그렇다. 김진수 이사는 로지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한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버추얼 휴먼이 돈을 버는 도구로 인식되는 것을 기피하다 보니 상업적인 요소를 배제해야만 할 때도 있었어요.”

김진수 이사의 큰 뼈대 아래 로지팀원들이 선택한 가치는 친환경이다. 스스로를 지구의 환경을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는 MZ세대답게 로지 또한 환경친화적인 삶을 구축했다. 지난 여름, 로지는 굿네이버스와 일회용품 사용을 거절하는 ‘괜찮아요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고, 몸소 실천하고 있다. 업사이클링 소재나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의류도 꾸준히 언급하며 인간과 지속적인 공존을 꿈꾼다.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답이 될 수 없으니 작은 거라도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로지를 통해 많은 분이 삶의 가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작은 바람이죠.”



앞으로도 No.1 Only 1, 오로지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어요.” 로지를 만나고 김진수 이사의 일상도 많은 게 변했다.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로지를 따라 김진수 이사는 카페에 가도 더 이상 빨대를 찾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주체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점. 김진수 이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고, 도전해가며 로지에게 ‘최초’라는 수식어를 선물하고 싶다고 한다. 국내 최초 가상 인간, 로지는 처음으로 사회공헌 캠페인에 참여했고, 얼마 전 넷플릭스에 방영될 드라마 촬영도 마쳤다. 이러한 노력 모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의 일을 해나가며 앞서가기 위함이다.

많은 관심을 받고, 광고도 찍은 로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세계관을 준비 중이다. 내년에는 해외 진출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이미 로지는 해외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으며 가상 모델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로지는 저희에게 가족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요.” 로지의 처음을 함께한 김진수 이사의 한마디에서 그간의 애정이 묻어난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로지,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나눠줄까. 싸이더스 스튜디오 엑스가 로지와 함께 만들어 갈 다음 행보가 궁금해진다. 🚀



시상식의 품격이 담긴 2021 제30회 부일영화상

지난 10월 8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부일영화상의 서른 번째 문이 열렸다. 부산 해운대 벅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국내 최정상 영화인들이 모여, 최고의 한국 영화를 가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었다. 1958년에 막을 연 부일영화상은 1973년 이후 잠시 중단되지만, 2008년부터 화승그룹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대한민국 최초 영화제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2021 부일영화상 수상작 및 수상자

최우수작품상	모가디슈
최우수감독상	이준익 <자산여보>
남우주연상	유아인 <소리도 없이>
여우주연상	전종서 <콜>
남우조연상	허준호 <모가디슈>
여우조연상	김선영 <세자매>
신인감독상	홍의정 <소리도 없이>
신인 남자연기상	하준 <잔칫날>
신인 여자연기상	이유미 <어른들은 몰라요>
각본상	이기철·류승완 <모가디슈>
촬영상	최영환 <모가디슈>
음악상	방준석 <모가디슈>
미술/기술상	정철민·정성민 <승리호>
유현목영화예술상	이춘연
남자 올해의스타상	조인성 <모가디슈>
여자 올해의스타상	이숨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부산일보가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며 화승그룹이 협찬하는 부일영화상,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올해의 스타와의 토크’와 핸드프린팅, 레드카펫 행사가 펼쳐졌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작년과 동일하게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지만 부산MBC와 네이버TV의 생중계로 생생한 현장을 느낄 수 있었다.

제일 먼저 올해의 스타상을 수상한 조인성, 이숨 배우의 ‘올해의 스타와의 토크’로 시작됐으며 두 배우는 수상 소감을 통해 부일영화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밝혔다. 핸드프린팅 행사에는 지난해 수상자들인 이병헌(남우주연상), 정유미(여우주연상), 이희준(남우조연상), 이레(여우조연상), 김대건(신인 남자연기상), 강말금(신인 여자연기상) 배우가 함께했다.

올해 레드카펫의 드레스코드는 블랙 앤 화이트였다. 지난해 수

상자였던 이병헌, 정유미, 이희준 배우는 블랙의 수트와 드레스로 무게감을 더하고 이레 배우는 발랄한 화이트 색상의 드레스로 통통 튀는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올해 수상자인 유아인, 이숨, 이유미 배우 등도 검정색으로 각자의 개성을 표현했다.

대한민국 최초 영화제이자 30회를 맞은 부일영화상은 올해 새로운 변화도 시도했다. 빠르게 바뀌는 영화산업에 발맞춰 OTT 작품도 후보에 포함한 것이다. OTT 플랫폼 공개작인 <콜>, <낙원의 밤>이 후보작에 올랐고, <콜>의 전종서 배우는 여우주연상의 영광을 안았다. 남우주연상은 <소리도 없이>의 유아인 배우에게 돌아갔다. 올해 300만 관객을 돌파한 <모가디슈>는 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각본상 등 6관왕을 기록했다. 2021 부일영화상은 총 16개 부문을 시상하며 1년간 대한민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영화인들에게 아낌없는 감사를 표했다. 📌

STATION

화승은 '소통, 열정, 사회공헌, 고객우선'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안으로 내실을 기하고 밖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사다난하고 변화무쌍했던 신축년, 함께여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화승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마의 정원에서 엄마의 정을 느끼다

사람의 정성과 노력에 세월의 힘까지 더해진 정원이 있다. 자식을 낳고 기른 엄마의 마음과 보살핌으로 지금의 모양새를 갖춘 '엄마의 정원'이다. 경상남도에서 열네 번째이자 밀양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된 민간정원, 엄마의 품속 같은 그 정원으로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느리게 걸어 들어가 본다.





독특한 계절의 정취를 불러일으키는 메타세콰이어 길



1 발길 닿는 곳마다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엄마의 정원
2 밀양 첫 민간정원인
엄마의 정원을 만든
노종식 대표

엄마의 정원,

밀양을 대표할 자연 공간으로

우리나라 3대 아리랑 중 하나인 <밀양아리랑>의 고장이자 영화 <밀양>의 무대이기도 했던 곳, 뫼지 모를 비밀과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을 것만 같은 경상남도 밀양, 이곳에 지난 8월 31일 이 지역 최초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엄마의 정원’이 있다.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이정표를 따라 들어간 곳은 온통 꽃과 나무들의 세상이다. 나무사잇길을 지나 땅을 지키는 열두 신장(神將)이 도열해 있는 석상들을 만난다면 맞게 찾아들어간 것이다.

부르기만 해도 정겨운 ‘엄마의 정원’은 22,000평(72,655㎡) 규모에 소나무, 향나무, 배롱나무, 메타세콰이어, 금·은목서 같은 교목류*를 비롯해 철쭉, 장미, 능소화, 수국 같은 관목류**와 꽃무릇, 구절초, 금낭화 같은 야생화 등 130여 종의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지난 1996년에 첫 삽을 떴다고 하니, 지금의 모습은 25년 세월이 빚은 결과이자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당연히 처음부터 이런 규모는 아니었지요. 과수원 자리였던 농장 1,600평에서 시작해서 점차 주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늘리고, 빈 땅에 나무 한 그루 한그루 일일이 사다 심고 가꾸다 보니 어느덧 2만 평이 넘는 규모가 되었네요.” 대학에서 조경을 전공하고 조정사업을 하면서 지금의 ‘엄마의 정원’을 만든 주인공, 노종식 대표의 말이다.

조정사업을 위한 수목원이었던 이곳은 ‘엄마의 정원’이라 불리기 이전부터 마을 주민들이나 인근 중남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였던, 개방된 산책로였다. 그러다 수목원 한쪽에 사무실로 쓰던 건물을 개조, 카페를 마련하면서 알음알음 찾아오는 이들의 쉼터이자 만남의 공간으로 입소문을 탔다. 조정 및 임업 관계자들의 독려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차원의 조정수 자원 확보와 학습·건강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최근 밀양의 첫 민간정원으로 지정되었다.

*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가 8미터를 넘는 큰 나무류
** 원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분명치 않은 작은 나무류

엄마의 정성과 손길이 느껴지는

정원으로

“어머니가 작고하신 지 6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생전에 거처하셨던 수산리에서 이곳 남전리까지 매일 버스 타고 오셔서 풀도 메고 꽃도 심고 하셨어요. 곳곳에 우리 어머니 마음과 손길이 담겨있는 정원입니다.” 평소 꽃과 나무를 사랑하고 이웃과 베풀고 나누기 좋아하셨던 어머니의 뜻과 정성을 기리기 위해 돌아가신 후에야 ‘엄마의 정원’이라 이름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정성이 더해진 정원은 꽃과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군락을 이루고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나무 한 그루 한그루에 한 땀 한 땀 더해진 수고로움을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조경수(造景樹)’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일일이 전정을 하거나 와이어 작업을 해놓았기 때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지만, 이곳의 나무들은 사람 손으로 기르고 가꿔진 특별한 작품이자 가치 있는 상품으로, 쉽게 지나칠 수 없게 만든다.

세상에 하나뿐인 모양새를 갖춘 소나무, 향나무들과 정원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석탑, 석등 같은 조형물들은 이곳만의 독특한 볼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수해 온 석물들은 정원의 꽃, 나무들과 조화로운 매력을 더한다. 개방을 목적으로 특별한 계획하에 조성한 정원이 아니라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만들고 가꾼 이의 정성과 섬세함이 느껴진다.

다듬잇돌 깔린 보행로, 돌계단, 박석 산책로를 걷다 보면 시기를 달리해 피어나는 꽃들의 풍경과 마주할 수 있다. 백일홍 철에는 백일정원에서, 수국 철에는 수국정원에서, 그리고 능소화 필 때는 능소화정원에서 망중한을 즐길 수 있다. 나무 터널을 지나 정원의 중심에 있는 아래음달폭포에서는 청량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폭포 옆길로 오르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계절마다 색다른 정취를 선사한다.



1



2



3



4



5

1 최근 밀양의 핫 플레이스가 된 카페
엄마의 정원 2 한 땀 한 땀 사람의 손
길과 정성으로 가꿔진 정원의 수목들
3 엄마의 정원을 수호하는 열두 신장
석상 4 석탑, 석등 같은 석물들이 운
치를 더하는 엄마의 정원 5 엄마의
정원에서만 볼 수 있는 석물 동물원



©엄마의 정원

정원의 싱그러움이 담긴 여름날의 엄마의 정원



©엄마의 정원

함께 나누고 만들어가는 엄마의 정원으로

가족과 함께 엄마의 정원을 찾는 방문객
이라면 석물 동물원은 빼놓지 말고 둘러
봐야 할 곳이다. 돌로 만든 펭귄, 코끼리,
양, 원숭이, 여우 등이 한 쌍 혹은 가족
으로 구성돼 있어 보는 이들을 미소 짓
게 한다. 돌하르방과 현무암을 전시해 놓
은 제주 정원도 있으며 분재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문
화 예술 무대를 접할 수 있는 야외공연
장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여기서 국악 공연도 하고 지역
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도 꾸준히 진행해왔거든요. 코로나 때문
에 어쩔 수 없게 됐지만, 빨리 상황이 호
전되어 관람객들이 정원도 둘러보고 공
연도 함께 보고 즐겼으면 합니다.”

민간정원 지정 이후 관람객이 더 늘어났
지만, 규모나 시설 확장이 아닌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노종식 대표는 덧붙인다.
“저희가 조정 수목 생산 및 시공관리로
2012년 산림청장상을, 2019년 전국 모범
농장심사 최우수로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상을 수상했는데요. 갖고 있는 기술과
역량을 나누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조
경하는 후배들이나 이 분야에 관심 있
는 이들이 찾아와서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왔듯 입장료 없는 열린 공
간으로 앞으로도 엄마의 정원만의 정체
성을 유지해나가고 싶다는 노종식 대표,
마지막으로 “입장료 유무를 떠나 내 것

처럼 이용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져오신
쓰레기는 뒤처리만 잘하시고, 본의 아니
게 망가뜨리는 물건이나 나뭇가지가 있
으면 가실 때 말씀만 해주이소”라며 부
탁의 말도 잊지 않는다.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엄마의 정
을 느끼고 싶다면, 이웃과 함께하고 나
누고자 한 정원지기의 마음을 확인해보
고 싶다면, 그리고 자연 속에서 자신만
의 시간을 갖고 싶다면 엄마의 정원으로
발걸음해보자. 엄마의 품 같은 정원에서
소요하며 힐링할 수 있으리라. 🍃

밀양 민간정원 1호, **엄마의 정원**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남전7길 41-19
055-391-5959

청년들을 품고 도시재생을 꽃피우다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허그라운드>



도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거쳐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 문화를 바탕으로 생명력을 가진다. 도시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사람들의 삶과 만나기도 한다.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부산의 옛 도심지 동래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공간, 허그라운드를 찾아가본다.

부산 인싸들의 핫플레이스

근대 이전까지 부산의 중심지역은 지금의 동래구 일대이다. 그래서 부산 동래는 ‘고도심(古都心)’이라고도 불린다. ‘고도심’에서도 짐작하듯 지금의 동래는 도심이 아니다. 한때 부산 동래(東萊)하면 동래과전, 동래읍성, 동래시장 등을 떠올렸지만, 그간 공간의 노후화와 인구감소로 예전의 명성을 서서히 잃어가는 중이다. 그 생기를 잃어가던 고도심 동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생겨났다. 올해 5월 부산 동래시장 한 귀퉁이에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허그라운드’가 문을 연 것이다. 오픈한 지 7개월째를 맞은 허그라운드, 인싸들에게는 동래의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1 독립출판물 위주의 서점 공간 2 5층 셰어하우스 거실 3 3층 공유오피스의 유튜브 스튜디오





2층 허그라운드라운지의 편집숍



3층 공유오피스 전경

동래시장 귀퉁이에서
도시재생을 외치다

허그라운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지원금 5억 원으로 마련된 공간이다. HUG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3곳의 ‘허그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계약기간·보증금 등 부담을 낮춘 공간을 청년에게 제공해, 주거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성 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허그라운드는 이보다 기능이 더 강화된 개념이다. 기존 셰어하우스에 셰어오피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까지 갖춘 ‘허그라운드’는 HUG 본사가 있는 부산에 처음 만들어졌다.

허그라운드는 동래시장 옆 우리은행 별관 3개 층(2·3·5층)에 자리하고 있다. 평범하고 수수한 건물 속 2층으로 들어가면 정갈하면서도 세련된 공간이 확 펼쳐진다. 2층은 커뮤니티 공간(Lounge U)으로, 기장 미역·커피·베이커리·전통주 등 입점사들의 대표 상품을 채워넣은 편집숍과 카페, 작은 서점, 열린 모임공간 등이 구비되어 있다.

“허그라운드에 입점된 제품들은 대기업이 장악한 식품 유통업계에서 동네의 이름, 또는 지역 특산물을 통해 구현한 독자적인 로컬리티를 무기로 삼아 분투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판매 기능도 일부 수행하지만, 이곳은 입점 업체들이 상품을 선보이는 테스트베드이자 기획 전시 등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더 큼니다.”

허그라운드의 조성 및 운영을 맡은 어반브릿지 이광국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는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일하며 ‘음악창작소’ 등 지역 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지원하는 업무를 도맡았다. 이 같은 경력이 허그라운드에 숨은 보석 같은 로컬 업체들을 입점·협력사로 유치하는데 힘을 발휘하였다.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어반브릿지 허그라운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237번길 28
051-710-8488

공간이 바뀌면
도시가 재생하리니

허그라운드 3층 공유오피스(Work U·17실)와 5층 셰어하우스(Stay U·11실)는 ‘지역 청년 지원’이라는 HUG의 조성 취지에 충실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3층에는 공유오피스 외에도 공유주방과 유튜브 스튜디오 등의 열린 공간이 마련돼 있다. 4층 셰어하우스 역시 넓은 거실을 상징하듯 청년들의 커뮤니티 만들기에 부족함 없이 배려 가득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모이고, 도시가 바뀐다.’ 2019년 기획한 공모 때부터 시작된 상상이 팬데믹의 충격에도 굴하지 않고 현실화되었다. 사람과 스토리가 자유로이 넘나드는 개방성만큼 허그라운드의 꿈은 크다. 공간을 넘어 사회혁신 솔루션을 제시하는 소셜 디벨로퍼! 부산 동래의 핫플레이스 허그라운드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진한 차(茶)향 가득한 속 깊은 꿈을. 🍵

이광국 어반브릿지 대표

“허그라운드는 단순한 하우스가 아니라 그라운드 같은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로컬과 로컬을 잇는 그라운드, 그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와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 한번 들려주세요. 언제나 열린 공간, 차향 가득한 허그라운드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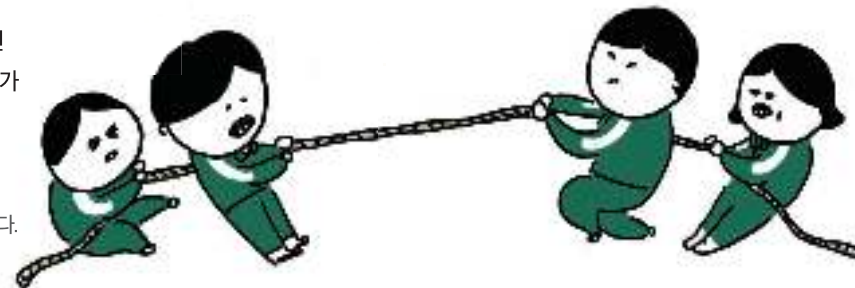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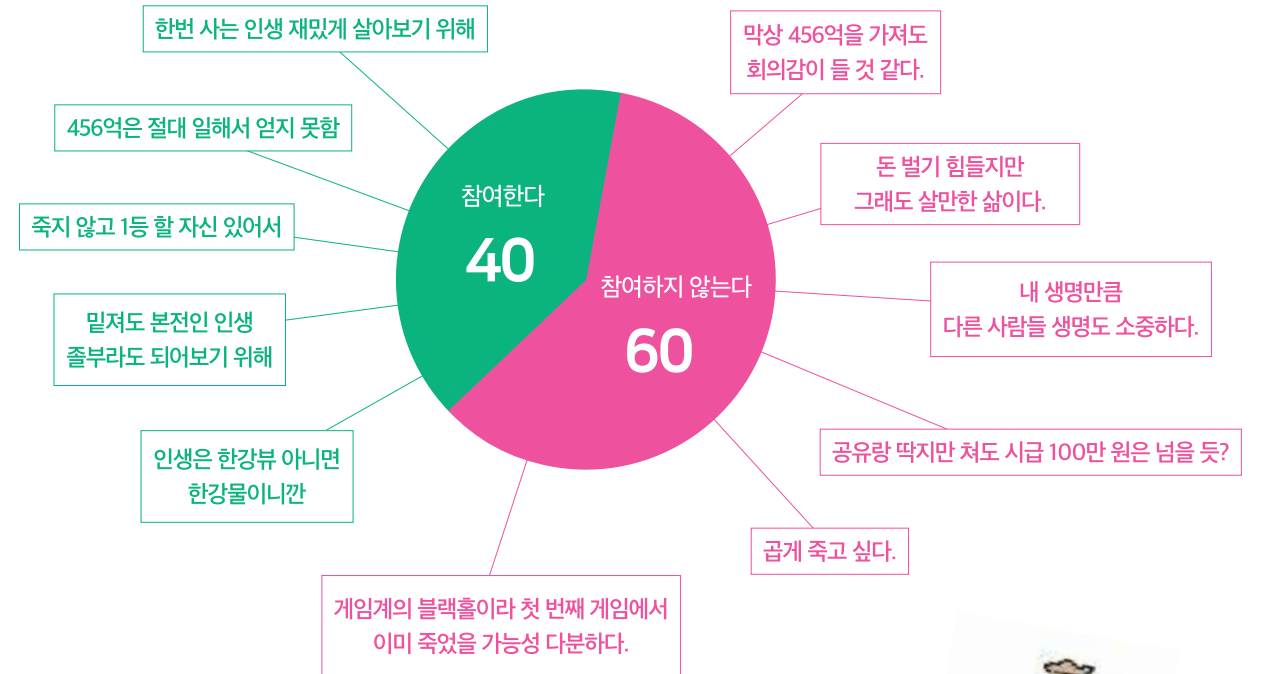
오징어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됐다.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선 456억이라는 잔혹하면서도 달콤한 상금으로 사람들의 도덕성을 시험한다. 하지만 모두 승자가 될 수 없는 법. 화승인들에게 물었다. 당신이라면 오징어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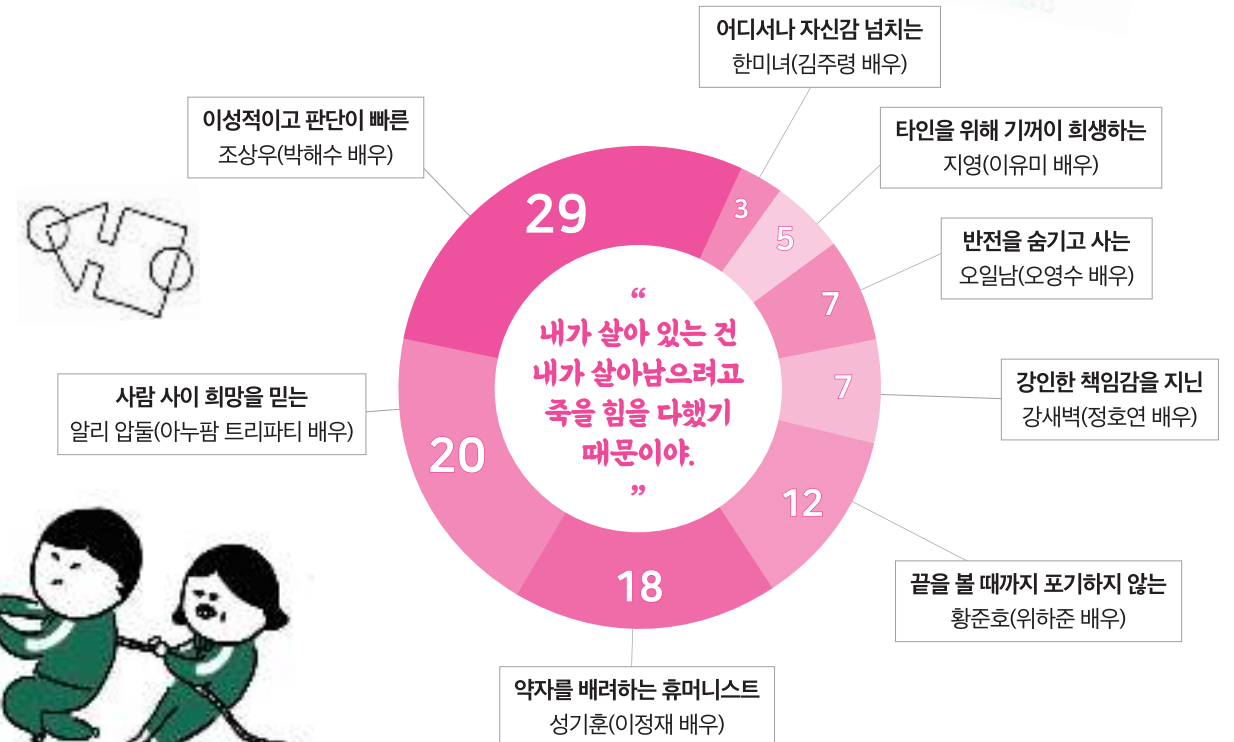
*해당 설문은 지난 12월 1일~3일까지 온라인에서 실시하였으며, 화승그룹 사우 100여 명의 답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Q1 오징어게임에 참가를 제안 받는다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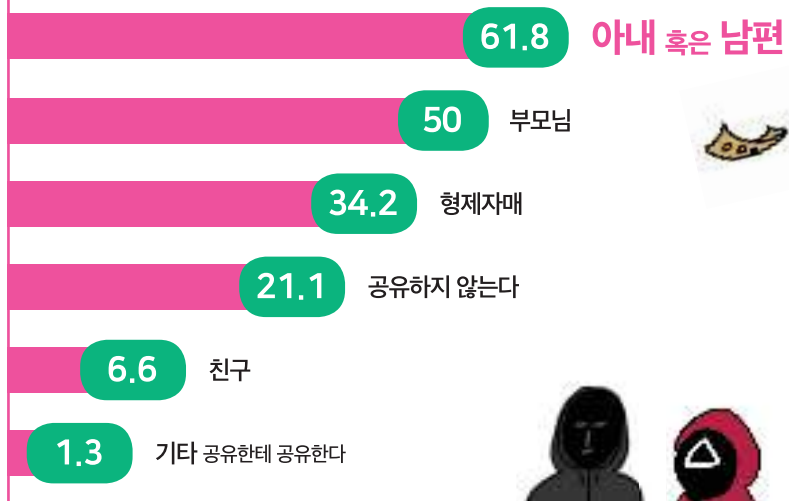


Q2 오징어게임에서 나와 비슷한 캐릭터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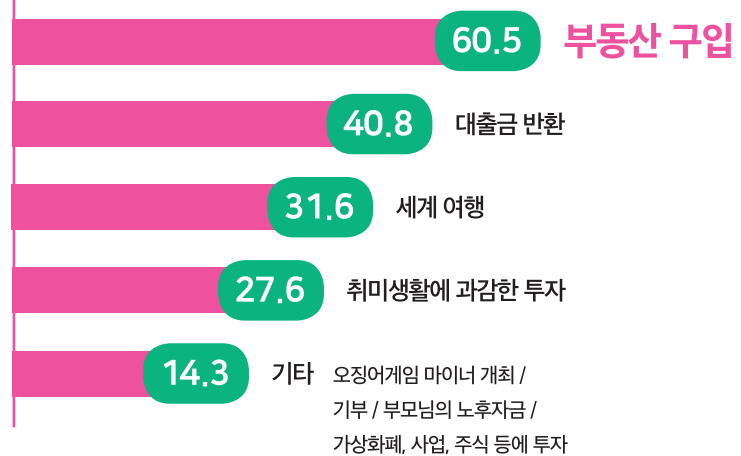




Q3 만약 456억 원이 생긴다면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인가? (단위: %, 중복 답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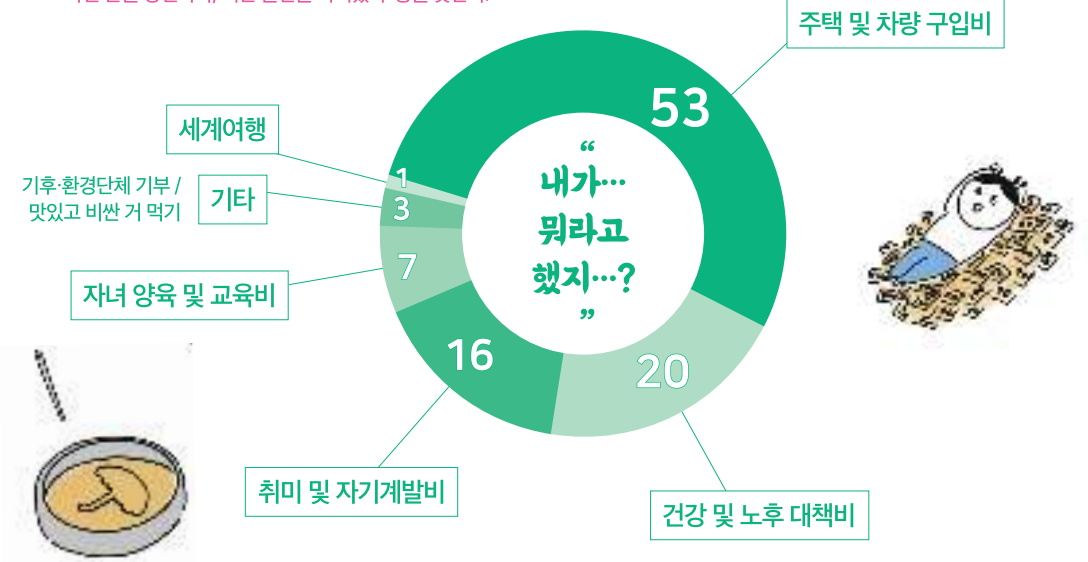


Q4 만약 456억 원을 받는다면 제일 처음 어디에 지출하고 싶은가? (단위: %, 중복 답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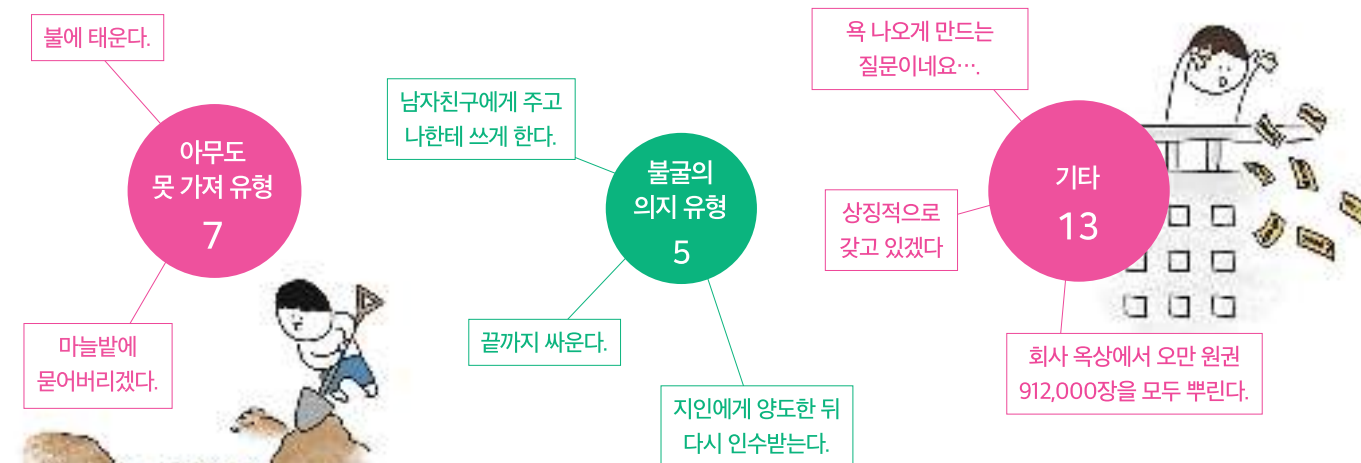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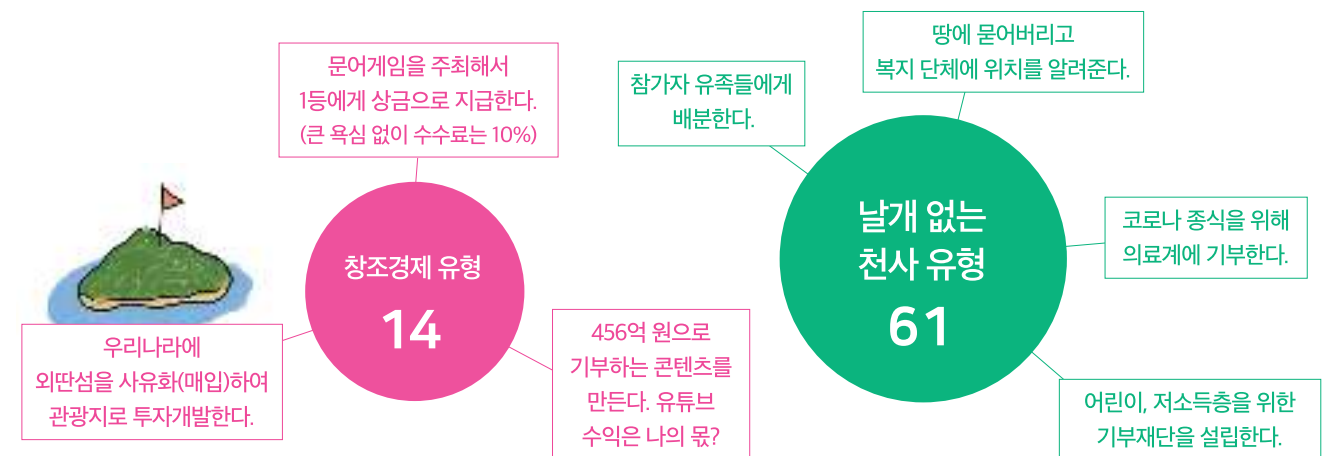


Q5 456억 원 중 가장 많이 플렉스*하고 싶은 부분은? (단위: %)

*플렉스: MZ세대의 유행어로 '돈 자랑하다, 가진 돈을 탕진하다, 비싼 물건을 사버렸다' 등을 뜻한다.



Q6 456억 원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단위: %)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원더풀!



어느덧 연말연시이다.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 시간이 빨리 흐른 듯하다. 아무리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가족과 함께이든, 소수의 지인들과 하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조출한 송년모임이나 신년모임은 하게 마련이다. 남이 하면 재밌고, 막상 내가 하자면 조금은 막연한 건배사. 레트로가 트렌드인 요즘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클래식한 건배사라도 센스있게 하나 익혀보자.

잔을 들어 건강과 행운을 빌다

‘건배’하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는가.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라는 최백호의 <입영전야>인지, 아니면 ‘술잔을 높이 들어라 건배~’라는 나훈아의 <건배>일지... 바뀐 술문화 탓인지 건배 관련 노래하면 최신곡보다, 위의 클래식한 노래들을 흔히 떠올리지 않을까. 건배라는 단어가 올드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연말연시이면 잘나가는 인기 검색어가 ‘건배사’이다.

흥얼흥얼 노래가 음성지원되는 단어, 건배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 건배를 사전적으로 풀면 ‘술좌석에서 서로 잔을 들어 축하하거나 건강 또는 행운을 비는 일’을 말한다. 또한 건배(乾杯)는 ‘잔(杯)을 다 마셔 비운다(乾)’는 중국 풍습에서 유래되었다. 서양에서는 건배를 할 때 ‘토스트(toast)’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하여’처럼 음주자들이 술을 마시기 전에 잔을 높이 들고 외치는 건배사인 것이다.

왜 ‘구운 빵’을 뜻하는 토스트가 건배를 의미하게 되었을까? 옛날 유럽에서는 포도주 맛을 좋게 하기 위해 포도주 잔에 갓 구운 토스트 한 조각을 넣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래하여 그것이 건배사가 되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의 최대공약수적 소망을 담는다

동서양의 술자리 문화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것이 건배이다. 고대 사회의 제의에서 술잔을 높이 들고 신과 소통하는 제사장의 신성한 행위의 속화된 형태가 이후에 건배로 남게 되었다는 게 정설이 되고 있다.

또한 건배한 뒤 동시에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는 이유는 혹시 술에 독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습관과 풍속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듯 인류는 건배라는 행위를 통해 서로의 우정과 동료의식, 공동체 관계를 확인하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건배의 목적을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을 위한 기원, 가정의 행복을 비는 축원, 모임이나 조직의 일이 잘되라는 염원 등 함께한 이들의 공통분모적 소망을 담은 것이 건배사로 무난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연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배사로 ‘코로나의 강을 잘 건너고 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축원을 하면 어떨까. 우리 함께 물 잔이라도 들고 외쳐보자. I say 이 또한, You say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

유머 건배사

마술 드술
프랑스 발음처럼 하는 것이
포인트인 건배사

박보검
박수를 보냅니다
검(검)나
수고한 당신께

너나잘해
너와 나의
잘나가는
해가 되기를

할명수
활기차게,
명랑하게,
수다떨자

오징어
오래도록
징그럽게
어울리자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해가 되길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우리모두 통통통
새해에는 의사소통,
운수대통, 만사형통

마음 도둑
고객의 마음을
훔치자

클래식/심플한 건배사

Cheer up!

레트로한 건배사

구구팔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당나귀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나이아 가라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자

진달래
진하고
달콤한
래(내)일을 위하여



HWASEUNG NEWS

편견 없는 세상, 예술로 만나다

-로봇 아티스트 황성제 작가, 화승그룹-KNN 공익 캠페인 출연



지난 11월, 부산 비콘그라운드에서 뜻깊은 촬영이 진행되었다. 2021년 <DBT Magazine> 봄호에 소개됐던 로봇을 사랑하는 아티스트, 황성제 작가가 화승그룹과 KNN이 함께 진행하는 공익캠페인 'KNN 행복 캠페인'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 황성제 작가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뛰어난 표현력으로 각각의 개성을 살린 수많은 로봇을 캔버스 위에 그려내 작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실제로 그의 작업 노트에는 약 2만여 가지의 로봇이 스케치되어 있으며 각 로봇마다 개성이 담겨있어 실제 작품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번 KNN 행복 캠페인에서는 황성제 작가의 작품 소개와 함께 장애의 여부를 떠나 주변의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작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실제로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무척 힘들다. 하지만 주변의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재능과 역량을 발견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이들이 편견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고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다면 그 세상은 정말 아름다울 것이다. 편견 없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향하는 또 하나의 한 걸음, KNN 행복 캠페인에서 만날 수 있다.



환경도 생산도 모두 'All Green'

-화승소재, 300억 원 그린본드 발행



화승소재는 중소·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채권 발행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그린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지난 10월에 밝혔다. 화승소재는 녹색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 전부를 친환경 소재 'TPE'의 일종인 TPV(열가소성 가교 엘라스토머) 생산라인 증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화승소재는 2017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제2공장인 명례공장을 완공해 현재 TPV 생산라인 4개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당시 시설 투자에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내년까지 추가 투자를 통해 2개 생산라인을 증설할 예정이다.

화승소재는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지난달 녹색채권 인증 평가를 받아 '부합' 의견을 취득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화승소재의 TPV 생산라인이 생태 효율성과 순환경제를 고려한 제품 생산기술·공정으로, 국제자본시장협회의 녹색채권 원칙과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화승소재는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계기로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밝혔다. 일반 TPV뿐 아니라 최근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바이오TPV도 앞당겨 생산해나갈 방침이다.



HWASEUNG NEWS

혁신으로 소비자와 만나다

-화승케미칼, 프리미엄 카케어 제품 ‘CARLUMI’ 출시



화승케미칼이 B2C 분야로 새롭게 진출했다. 화승케미칼은 Fine Chemical 분야에서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것이 기업유지’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필름 △화학 △컴파운드 분야의 B2B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화승케미칼은 끊임없는 혁신성장의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그 결과, 화승케미칼은 유수의 자동차 회사와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카케어 브랜드 ‘CARLUMI(카루미)’를 개발했다.

카루미의 카케어 제품은 현재 ▲럭 디테일러 ▲셀프 클리너 ▲유리막 코팅제 ▲타이어 광택 보호제 ▲윈스텝 폴리쉬 등으로 제품이 출시되었다. 전문가 영역에서 사용되던 고급 사양의 카케어 제품을 일반 소비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카루미 시리즈는 국내 생산, 국내 개발로 생산부터 품질·납품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카루미 시리즈의 품질은 불량률 제로를 달성하는 등 완벽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한편 카케어 제품 이외에도 골프케어 제품 등 더욱 많은 제품 라인으로 소비자와 만날 예정이다.



화승네트웍스 박동호 대표의 행복한 책임기

-데이비드 윌러스 웰즈 『2050 거주불능 지구』



지난 10월, 화승네트웍스 박동호 대표가 KNN <행복한 책임기 프로그램>에 출연해 데이비드 윌러스 웰즈의 저서 『2050 거주불능 지구』를 소개했다. 박동호 대표는 파나시아 이수태 회장으로부터 책을 선물 받고 탐독하던 중 출연 제의를 받고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다. 화승네트웍스는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중 바이오중유 사업을 하고 있다. 열대과일인 팜과 코코넛의 잔사유를 이용해 화석에너지의 대표격인 석탄을 대체하는 발전소의 청정에너지로 향후 사용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청정에너지에 관심을 두던 차 2050년 거주불능 지구가 오기 전에 모든 기업이, 모든 사람이 지구 환경, 우리의 미래에 대해 꼭 한 번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이 책을 <행복한 책임기> 코너에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거주불능이 다가오는 이 지구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우리 자신들의 몫이 가장 크며, 거창한 해결책보다 당장 우리 주위에 쓰레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작은 실천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탄소세를 도입하고, 정치적 기구를 활용하고, 새로운 방식의 농경 기술을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근시안적인 해결책보다 실현 가능한 현실적 해결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KNN 황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제작된 본 프로그램은 KNN에 방영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내일을 향해 쏴라!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껏 우주를 향해하는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머나먼 미래의 상상이 가까운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화승전진을 외치며 3, 2, 1, 발사!

로켓 만드는 법[검은 실선, 겹면 기준]

- 1 A의 바깥 실선(—)을 따라 잘라주세요.
- 2 a~k의 접음선(.....)을 접고, 파란색 시접에 풀을 칠해 각각 a-1~k-1에 붙여주세요.
- 3 B를 바깥 실선을 따라 자르고, A의 상단에 빗금으로 색칠된 A-1(///)에 붙여주세요.
- 4 3개의 C를 바깥 실선에 따라 자르고, 접음선(.....)에 자를 대고 칼등으로 약하게 칼집을 내어 접어주세요.
- 5 풀을 칠한 C-1을 C-2 위에 겹쳐 붙이고, C-3의 색칠된 삼각형 중앙에 맞춰 붙여주세요.

우주선 만드는 법[검은 실선, 겹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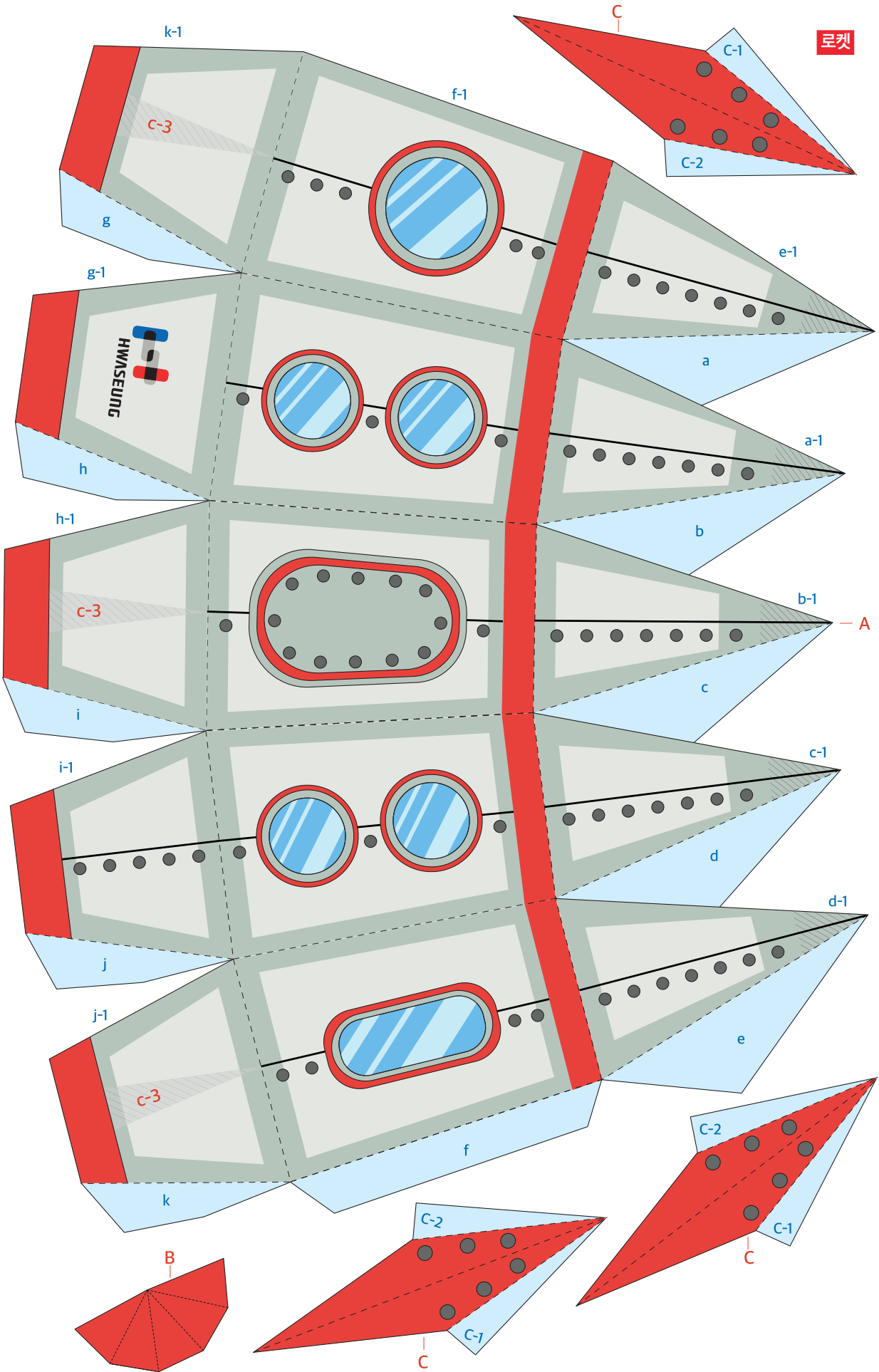
- 1 A의 바깥 실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 2 A의 접음선(.....)을 따라 접고, 시접에 풀을 칠해 각각의 옆면에 붙여주세요.
- 3 B의 바깥 실선을 따라 자르고, B의 접음선(.....)에 자를 대고 칼등으로 약하게 칼집을 내어 접어주세요.
- 4 회색으로 색칠된 시접(▲)에 풀을 칠해 옆면에 등글게 붙여주세요.
- 5 B의 하단 시접도 접어 풀을 칠하고, A에 적힌 A-1에 붙여주세요.
- 6 4개의 C를 바깥 실선에 따라 자르고, 접음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 7 C-1 표시된 빗금에 풀을 칠하고 C-2에 붙여주세요.
- 8 완성된 4개의 C를 A의 밑면에 위치한 점선(-----)에 따라 붙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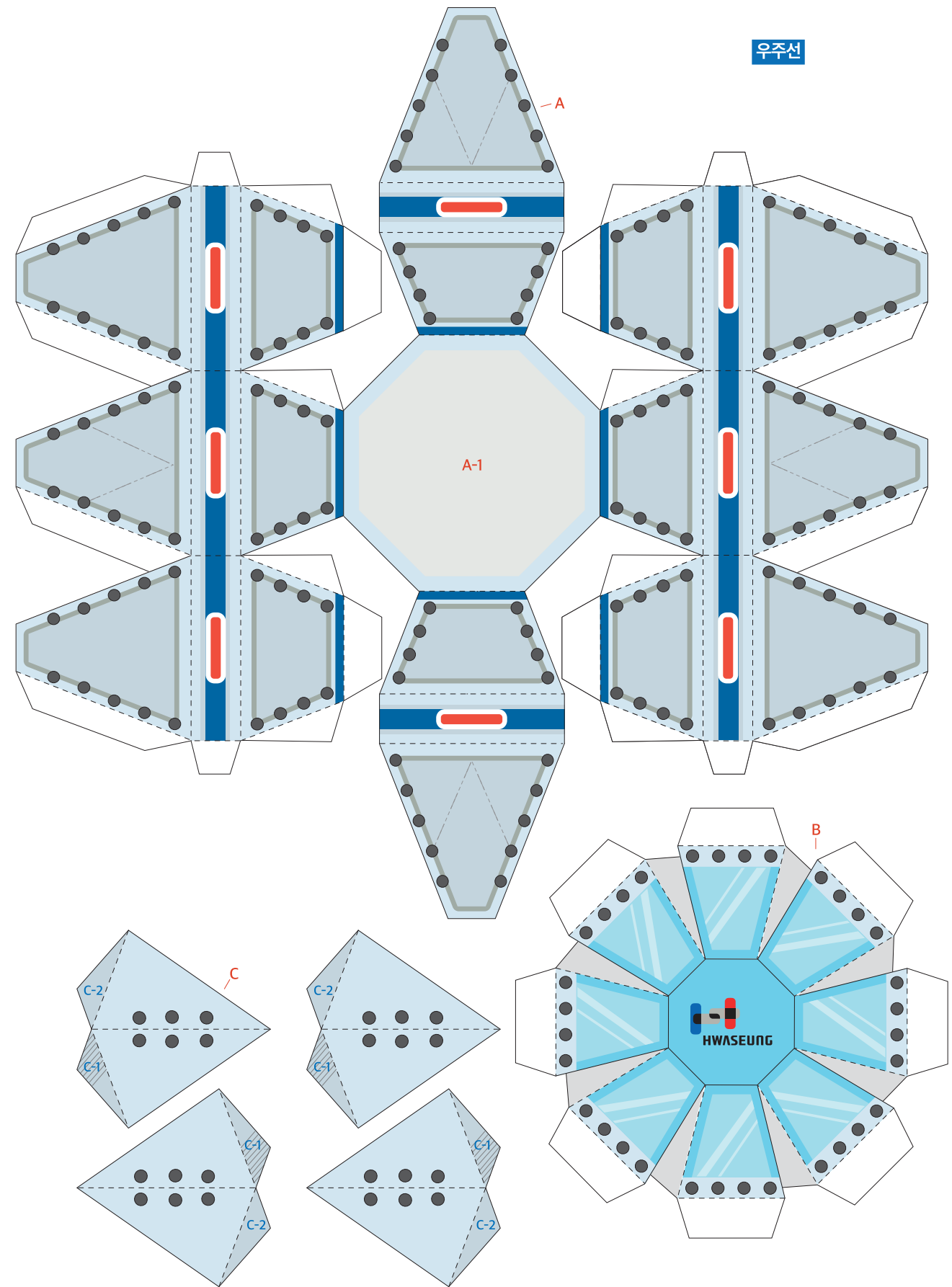
준비물

가위, 칼, 풀, 투명테이프, 자,
커팅매트(없을 시 두꺼운 신문지나
유리바닥 활용)

소요시간

30분 이상





**CAR[®]
LUMI**
www.carlumi.co.kr



PREMIUM CAR CARE SERIES

"CARLUMI BEYOND SHINE"

화승케미칼은 1995년부터 국내외 우수 자동차 브랜드의 파트너로
제품을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카루미는 화승케미칼이 선보이는
Premium Car Care Series로
자동차소재 분야의 기술과 품질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Beyond Shine!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WANTED



화승 70년, 살아 숨 쉬는 역사를 찾습니다!



2023년, 70주년을 맞이하는 화승그룹은
여러분과 100년을 향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고자 합니다.

소중했던 시간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전,
화승그룹과 울고 웃었던 추억, 빛바랜 사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화승그룹의 70년 역사를 추억하는 사진, 물건, 그에 얹힌 사연을
보내주세요. 흑백사진, 옛 기념품, 세월의 흔적이 쌓인 서류, 첫 월
급봉투 등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동양고무 #풍영화성 #화승화학
등 화승그룹의 옛이름이 들어간 자료 또한 열렬히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화승그룹 홍보팀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연산동) 장천빌딩 6층

이메일: illwook.sim@hscorp.com

문의전화: 051-850-7037

※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모두 환영